

국내외 과학기술 *Internet Site*

How Stuff Works (www.howstuffworks.com)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저건 뭐예요' '어떻게 움직이나요' '왜 그런가요'라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공세에 시달려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How Stuff Works는 바로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모든 사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는 곳이다. 하지만 이 곳에서 이뤄지는 답변은 기존의 Q&A 사이트들과 달리 사물의 기원, 작동원리, 응용 등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해 상세한 답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동영상, 사진 자료와 함께 관련 사이트 링크까지 얻을 수 있다. How Stuff Works는 청소년을 위한 책을 주로 써온 마셜 브레이니가 1998년 처음 만들었다. 브레이니는 당시 청소년의 궁금증에 대해 답을 찾다가 청소년용 도서는 답변이 충분치 못하고 성인용 도서는 청소년

년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이 사이트를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이 사이트에는 엔진, 가전제품, 컴퓨터 등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술적 의문에서부터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린 전구, 소니사의 최신 게임기인 플레이션 2 등 시기에 맞는 호기심까지 풀어주고 있다. 하지만 How Stuff Works가 담고 있는 질문이 모두 눈에 보이는 사물만은 아니다. 크리스마스나 휴일, 문신 등과 같은 엉뚱한 질문에도 답을 하고 있으며, 나노테크놀로지 등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소개도 하고 있다. 사실 학생에서 어른까지 일상적으로 접하는 궁금증은 상당히 다양하며, 특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의 작동원리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과학자 등 전문가들은 질문자의 수준에 맞추느라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How Stuff Works의 답변은 가장 평이한 설명을 하면서도 관련 회사, 최신 제품, 연구소 등 모든 정보를 알려줘 질문자가 자신의 질문을 더욱 발전시켜 스스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한다. How Stuff Works는 지난해 5월 한달 이용자수가 1백만명을 넘었으며 미국의 인터넷사이트 평가사이트인 PCDataOnline.com에 의해 최고의 웹사이트 1천에 포함되기도 했다.

자연다큐 전문 인터넷방송 (www.wildnet.co.kr)



99년 8월 초 개국한 인터넷 방송국 와일드넷은 (주)에코21이 운영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자연 전문 다큐멘터리 방송국이다.

개국 한달만에 12만명의 접속자를 돌파하면서 야후, 알타비스타,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이 달의 추천 사이트'로 선정됐다. (주)에코21은 Q채널의 자연다큐멘터리시리즈 '곤충의 시계' 2부작, '또 하나의 우주, 이끼' 2부작, KBS 환경스페셜 '도요새 1만킬로의 여정' 등 전문 자연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전문회사이다. 동영상들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 사이트는 다양한 동식물의 세계를 소개하는 '자연다큐멘터리', 인간과 자연의 만남을 소개하는 '자연과 사람', 동물들의 재미있는

모습을 순간 포착한 '재미있는 자연', 그리고 와일드넷에 참가하고 있는 김태정 한국야생화연구소장, 수중촬영전문가 조덕연씨 등 생태 전문가들이 기고한 자연 관련 칼럼을 제공하는 '와일드넷 칼럼' 코너, 다양한 자연생태 관련뉴스를 모은 '자연소식'을 운영하고 있다. 와일드넷의 장점은 1편당 1~5분 길이의 동영상을 제공해 전송속도 등으로 장시간 시청이 어려운 인터넷 환경에 맞춘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짧은 동영상에도 전문 성우의 해설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한편의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밤샘 촬영도 마다하지 않는 등 열정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송프로그램에 뒤지지 않는다. 현재 '제주도의 美鳥, 삼광조', '만주송이풀', '청개구리의 어느 고단한 하루', '바다 속을 걷다-머구리 잠수', '자연의 콩팥 우포늪' 등 약 70여편의 동영상이 제공되고 있으며, 매주 두개 꼴로 새로운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와일드넷은 2003년까지 한국의 자연 동영상DB를 구축해 한국의 자연을 문화상품으로 세계에 파는 인터넷판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지향하고 있다. (S7)

李永完 (동아사이언스 기자)